

2024년 케이-관광을 빛낸 '한국 관광의 별' 11개 선정

- 12. 18. 유인촌 장관, 올해의 관광지 '수원 화성&행궁동', 신규 관광지 '대구 간송 미술관' 등 시상
- 융·복합, 인구감소 대응, 환경·사회·투명 경영 등 새로운 관광 흐름 반영해 시상 부문 개편·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공사)와 함께 12월 18일(수) 오후 3시, 롯데호텔(서울 중구)에서 '2024년 한국 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현장을 찾아 시상하고,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2010년 이래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한국 관광의 별'은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 단체 등에 대한 시상으로서, 국민, 지자체, 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심사·평가를 거쳐 수상 자원·단체 등을 선정하고 있다.

새로운 관광 흐름 반영해 5개 분야 신설, 민간 분야 시상 확대

올해는 융·복합, 인구감소 대응,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등 새로운 관광 흐름을 반영해 ▲융·복합 관광콘텐츠, ▲지역 성장 촉진 콘텐츠, ▲친환경 관광콘텐츠, ▲동반성장콘텐츠, ▲관광 혁신콘텐츠 등 5개 분야를 신설했다. 또한, 민간 분야에 대한 시상을 확대해 총 9개 분야 11개를 시상한다.

2024년을 빛낸 '한국 관광의 별' 11개는 다음과 같다.

- ▲올해의 관광지는 '수원 화성&행궁동', ▲신규 관광지는 '대구 간송 미술관', ▲열린 관광지는 '시흥 갯골생태공원', ▲융·복합 관광콘텐츠는 '제주도 해녀의 부엌', '안동 맹개 마을', ▲지역 성장 촉진 콘텐츠는 '강화 협동조합

청풍’, ‘동해문화관광재단(어서와 이런 동해는 처음이지)’, ▲친환경 관광 콘텐츠는 ‘완도 청산도’, ▲동반성장 콘텐츠는 ‘대전 성심당’, ▲관광 혁신 콘텐츠는 ‘(주)오렌지스퀘어(와우패스)’, ▲한국 관광 홍보 미디어는 ‘한국교육방송(EBS) 한국기행’이 선정됐다.

올해의 관광지 ‘수원화성&행궁동’, 신규 관광지 ‘대구 간송 미술관’, 열린 관광지 ‘시흥 갯골생태공원’ 수상

<올해의 관광지>, ‘수원화성&행궁동’은 도심 속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전통적 매력과 근현대의 시간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관광지이다. 수원화성은 도심 속 웅장한 성곽으로 유명하며, 행궁동은 카페, 공방, 소품 가게 등 개성 있는 골목이 조성되어 젊은 세대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신규 관광지>, ‘대구 간송 미술관’은 간송 전형필 선생이 수집한 ‘훈민정음 해례’, 신윤복의 ‘미인도’ 등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건축 여행과 미술관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앞으로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 관광지>, ‘시흥 갯골생태공원’은 휠체어 대여소, 장애인 화장실 등 관광 약자를 대상으로 여러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공원 전반에 무장애 동선을 연결하기 위해 데크를 정비하고 휠체어나 유모차가 동반할 수 있는 ‘피크닉존’을 구성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차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신설 ‘융·복합 관광콘텐츠’, 지역의 생활 문화자원을 관광 콘텐츠화

<융·복합 관광콘텐츠> 분야는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관광콘텐츠를 선정한다. ▲2019년에 시작한 ‘제주 해녀의 부엌’은 해녀의 모습·음식·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극장식 레스토랑이다. 20대 청년 예술가부터 90대 고령 해녀가 함께 모여 해녀라는 직업군을 문화적 관점으로 풀어내며, 어촌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안동 맹개마을’은 낙동강과 청량산에 둘러싸인 휴양

관광지로 연간 7천 명 이상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찾는 농촌 여행지이다. 3만여 평의 농장에 친환경 밀과 메밀 농사를 바탕으로 전통 소주를 제조하며 농장체험(팜스테이)을 비롯한 체험 중심의 농촌 휴양관광을 운영하는 융·복합 관광의 선진사례이다.

<지역 성장 촉진 콘텐츠> 분야에서는 소도시 오래 머물기, 관계 인구 증대 등에 기여한 관광콘텐츠를 선정한다. ▲‘강화 협동조합 청풍’은 강화도의 지역주민, 청년, 예술가 등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힘을 합쳐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대표 체류형 관광상품인 ‘잠시섬’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강화도의 일상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 ▲‘동해문화관광재단’은 여행자 플랫폼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만나고 소통하는 ‘어서와, 이런 동해는 처음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해의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 프로그램인 ‘여행자 식탁’, 동해로 이주한 사람들이 관광객들에게 동해의 삶을 알려주는 ‘여행스케치 인(IN) 동해’ 등 동해의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친환경 관광콘텐츠> 분야는 지역 환경이나 생물 보호에 기여한 관광 콘텐츠를 선정한다. ‘완도 청산도’는 전남 완도에서 19.2km 떨어진 다도해 최남단섬으로 섬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있고,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바 있다. 청산도에서는 4월 청산도 느리게 걷기 축제를 열어 플로깅* 캠페인을 추진하고, 반딧불이 야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 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

대전 성심당, ‘나눔경영’ 실천, 지역과의 상생 도모하며 올해의 ‘동반성장 콘텐츠’ 선정

<동반성장 콘텐츠> 분야는 지역, 업계 등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며 관광 발전에 기여한 콘텐츠를 선정한다. ‘대전 성심당’은 은행동 상인회와 협업해 관광객이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상생 사업과 빵 축제 후원 등을 통해 대전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를 통해 연간 1,200만 명의 성심당 방문객을 지역 상권으로 유입시키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실천하고 지역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관광 혁신콘텐츠> 분야는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관광서비스를 새롭게 발굴하거나 개선한 민간기업을 선정한다. ‘(주)오렌지스퀘어’는 국내 최초로 결제, 환전, 교통카드 기능을 카드 한 장에 탑재한 방한 외국인 전용 일체형(올인원) 선불카드인 ‘와우패스(WOWPASS)’를 개발했다. ‘와우패스’는 15개 통화로의 원화 환전을 지원하고 가계부, 각자 내기(더치페이) 지원 기능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장벽을 없애고 편의를 크게 개선했다.

<한국 관광 홍보 미디어> 분야 수상자 ‘한국교육방송(EBS) 한국기행’은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아름다운 풍광과 역사, 문화, 음식을 소개하는 한국 교육방송(EBS)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관광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관광업계와 긴밀히 소통,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하는 데 총력

유인촌 장관은 “케이-관광이 빛날 수 있는 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관광인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최근 관광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문체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또한 관광업계와 힘을 모아 국내외 관광 수요를 조기에 회복해 대한민국이 다시 관광 대국으로 가는 길에 정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4 한국 관광의 별’ 수상지(기관) 소개

담당 부서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책임자	과장	박미경 (044-203-2811)
		담당자	사무관	이장우 (044-203-2819)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2024 한국 관광의 별 수상지(기관) 소개

분야	수상	사진	요약 소개
올해의 관광지	수원화성 & 행궁동		문화유산과 개성있는 로컬 문화가 잘 어우러져 있는 관광지로, 올해 4월에는 119년에 걸친 화성행궁 복원이 완료되었으며 카페, 공방, 소품샵 등이 자리 잡은 행궁동 골목상권은 K-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24) 촬영지로 한 해 동안 많은 MZ세대의 사랑을 받음. 또한, 수원화성과 행궁동 일원에서 개최되는 수원 화성문화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로 선정('24~'26) 되어 전통다과 체험, 다언어 해설공연, 무언어 미디어극 등을 운영하며 내외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도약함.
신규 관광지	대구 간송 미술관		간송 전형필 선생이 수집한 문화유산과 그 가치를 소개하는 전시공간으로, 개관 전시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신운복의 '미인도' 등 우리나라 대표 국보와 보물을 40건 97점을 선보이며 72일 만에 누적 방문객 20만 명을 돌파함. 미술관 개관으로 고미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 문화재 전시와 함께 건축투어, 미술관 음악회 등을 운영하며, 주변의 명소와 함께 지역의 관광투어로 대구시 문화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열린 관광지	시흥 갯골 생태공원		휠체어 대여소, 장애인 화장실 등 관광약자 대상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 누구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생태 관광지임. 수어통역 안내사 운영, 장애인 응대 매뉴얼 제작 등 프로그램적 측면에서도 열린관광지로서의 우수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
융복합 관광 콘텐츠 (1)	제주 해녀의 부엌		옛 주택을 개조한 극장식 레스토랑으로 해녀문화, 특산물로 만든 음식, 연극 3요소를 결합해 지역의 생활·문화자원을 관광상품화한 대표 사례임. 관객과의 소통, 지역사회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제주 해녀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음
융복합 관광 콘텐츠 (2)	인동 맹개 마을		개인이 시골 오지마을에서 시작한 밀밭 농사가 초석이 되어 숙박시설 운영, 전통주 제조, 양조장 투어 등으로 이어진 우수 융복합 관광 콘텐츠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트랙터 이동, 수용인원 통제, 친환경 원칙 고수 등 '느림과 불편함'을 선사한다는 고유의 철학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지속 발전시키고 있음
지역 성장 촉진 콘텐츠 (1)	강화 협동 조합 청풍		10년의 역사를 지닌 청년 조직으로 로컬 체류여행 프로그램 '잠시섬'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강화 지역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또한, 지역민 생산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기념품샵을 운영하며 지역 관광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분야	수상	사진	요약 소개
지역 성장 촉진 콘텐츠 (2)	동해 문화 관광 재단		지역 특산물 활용 미식체험, 지역 명사 초청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 지역주민 주도형 관광콘텐츠 '어서와 이런 동해는 처음 이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22년부터 DMO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 3년차를 맞이하였으며, '23년에는 최우수 DMO로 선정되었음
친환경 관광 콘텐츠	완도 청산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으로, 친환경 자원을 활용한 반딧불이 투어, 은하수 투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플로깅, Low 플라스틱 캠페인 등 환경보호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음
동반 성장 콘텐츠	대전 성심당		올 한해 '빵지순례 여행' 열풍을 일으킨 대전 향토 기업으로, 당일 판매 후 남은 빵은 지역 단체에 기부하고 대전 빵축제 후원하는 등 "나눔경영"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경제(EOC)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올해 11월에는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와 '대전 밀밭 경관조성 및 지역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밀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힘. 이외에도, 지역 상가를 소개하는 성심 상생센터 운영, 지역 소상공인과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지역 상인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관광 혁신 콘텐츠	와우 패스		국내 최초 외래객 전용 올인원 선불카드 서비스로, 주요 역사 등에 무인 키오스크를 운영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소비 편의성을 제고함. 이러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21년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으며, 서비스 출시 2년 만에 앱 가입자수는 130만 명을 돌파하였음.
한국 관광 홍보 미디어	EBS 한국 기행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하며 총 3.9천 회 이상 방영된 장수 여행 프로그램으로, K-푸드부터 섬까지 대한민국의 숨은 명소와 문화, 역사,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달하며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함.